

1. 다음 대화에서 삼촌이 고려했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카: 삼촌, 자전거가 뭐예요?

삼촌: 음, 자전거? 천체의自転을 말하는 거니? 자전거란 천체가 그 내부를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조카: 삼촌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요.

- ① 조카의 국적 ② 조카의 성별
- ③ 조카의 가치관 ④ 조카의 지식수준

2. ㉠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설문 조사 내용을 글로만 쓰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진수야, ㉠ 어떤 방법이 좋을까?

표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



- 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
- ③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 ④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3. 높임법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민수: 누나, 할머니가 오래.

누나: 민수야, 그럴 땐 ‘_____ ㉠ _____’ 라고 하는 거야.

- ① 누나, 할머니가 오시래.
- ② 누나, 할머니께서 오시래.
- ③ 누나, 할머니가 오라고 하셔.
- ④ 누나, 할머니께서 오라고 하셔.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 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② 우리는 비가 오기를 빌었다.
- ③ 나는 닭백숙을 매우 좋아한다.
- ④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럽다.

5. 밑줄 친 부분 중, 거센소리가 쓰인 것은?

- ① 나는 바닥을 솔로 뽁뽁 문질렀다.
- ② 깜깜한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다.
- ③ 탄탄하지 못한 출입문이 빠걱대며 흔들렸다.
- ④ 그는 비탈길을 종종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6.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단어의 분석이 바르지 않은 것은?

파생어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다른 뜻을 덧붙이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 ① 일꾼 → 일(어근) + 꾀(접사)
- ② 개살구 → 개(접사) + 살구(어근)
- ③ 장난질 → 장난(접사) + 질(어근)
- ④ 겁쟁이 → 겁(어근) + 쟁이(접사)

7.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한 것은?

다른 주체에 의해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이를 나타내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 ① 강아지가 물을 먹었다.
- ②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③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④ 나는 숙제를 하지 못했다.

8. 다음에서 학생의 건의 내용은?

저는 최근 책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화책부터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을 읽으며, 책 읽기의 재미를 조금씩 알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 주변에 일반 도서관은 있는데, 청소년 도서관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다양한 책을 구비해 주세요.
- ② 청소년 도서관을 지어 주세요.
- ③ 도서관 개방 시간을 늘려 주세요.
- ④ 도서관에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세요.

〈조사 계획서〉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목적	중학생의 여가 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300명
조사 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
조사 방법	(㉡)
역할 분담	• 설문 조사: 김○○, 서○○ • 면담 자료 정리: 이○○ • 조사 내용 정리: 한○○ • 보고서 작성: 전체 모둠원

① 조사 내용 ② 조사 과정
③ 조사 대상 ④ 조사 동기

① 토의 및 발표 ② 관찰 및 토론
③ 실험 및 협의 ④ 면담 및 설문 조사

㉠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잊목

- ①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 ②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 ③ 혼자 말하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① 향그러운 꽃지짐
- ② 푸른 휘파람 소리
- ③ 내 몸에 닿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 ④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굴러가는 소리

① 긍정적 ② 비판적
③ 회의적 ④ 풍자적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축에서 문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공간의 활용, 둘째는 비상시의 대피, 셋째는 행동 과학이 그것이다.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현관문의 여닫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간 활용의 측면이 강하다. ㉡ 신발을 벗어둘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 만약 현관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면 문을 열 때마다 현관의 신발들이 이리저리 쓸려 다닐 것이다. ㉣ 물론 현관이 충분히 넓다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관보다는 방 공간이 더 넓기를 바란다.

아파트 현관문의 여닫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건물 내의 화재 같은 비상시 대피의 측면이 강하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밀집해서 사는 공동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여닫는 방향은 사람들의 대피가 수월하도록 반드시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극장이나 공연장같이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 극장 문은 [A] 보통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비상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대피하기 쉽도록 문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

행동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간단한 일상의 예로 이해해 보자. 민형이 어머니는 밤늦도록 공부하는 수험생 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아들의 방문을 노크한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공부하던 민형이는 졸음을 떨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온다. 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민형이는 방문 앞의 어머니와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방문을 안쪽으로 열리도록 한 것은 방문이 열릴 때 방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16. ㉠~㉣ 중, 둘째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7. [A]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의 ② 비교
③ 예시 ④ 분류

18. 떨치려고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는?

- ① 그는 생전에 의학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②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고 고개를 저었다.
③ 그녀는 세상에 이름을 널리 떨치려고 노력했다.
④ 늦여름의 더위는 맹렬한 기세를 떨치고 있었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반찬으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치가 맛과 영양만이 아니라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요즘 먹는 김치는 대개 고춧가루로 버무려 붉은 빛이 난다. 그러나 김치의 색이 붉어진 것은 김치의 역사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7세기였고 본격적으로 우리 음식에 사용된 것은 18세기였다. 그러니 그 이전의 김치란 단순히 채소를 소금에 절인 것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백김치나 동치미를 생각하면 된다.

고춧가루를 사용하기 전에도 붉은색 김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치에 붉은 맨드라미 꽃을 넣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김치는 더욱 발전했다.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는 빨리 시어지지 않았다. 이전에는 김치가 쉽게 시어지고 상했기 때문에 소금을 듬뿍 넣어 매우 짰다. 그런데 고춧가루를 넣으니 소금을 덜 넣고도 맛있는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관련된 교훈적 사례를 통해 감동을 주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③ 대상과 관련된 위대한 인물의 업적과 생애를 다루고 있다.
④ 대상의 변화가 지닌 의미를 역사 속에서 찾아 밝히고 있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17세기에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②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는 백김치보다 빨리 시어졌다.
③ 고춧가루가 사용되기 전에도 붉은색 김치가 있었다.
④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김치에 소금을 듬뿍 넣었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박씨가 계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들을 몰살시킬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 오너라.”
 하지만 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계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 주겠다.”
 계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 작자 미상, 「박씨전」 -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② 농민들의 삶을 담아 낸 농촌소설이다.
- ③ 배경 묘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가미하여 꾸며 쓴 글이다.

2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화는 용골대와 맞섰다.
- ②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 ③ 박씨는 계화를 시켜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 ④ 용골대는 처음부터 박씨와 계화를 두려워했다.

23. ㉠~㉣ 중,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푸른 마라토너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나 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 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옳다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어떡하든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탄 사람들도 ㉠ 합세를 해 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

24. ‘나’가 ‘그’를 응원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1등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 ② ‘그’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 ③ ‘그’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④ ‘그’가 고통을 참고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2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곳의 세금을 합함
- ② 많은 사람이 힘들여 일함
- ③ 힘이나 권력으로 강제로 억누름
- ④ 흩어져 있는 힘을 한곳에 모음